



박연자 회장 별세  
밀양 산골서 태어나  
국내 신발산업 거목으로…

MONTHLY KOFA

# 코파의

Tel. 021-3002-9091 E-mail : indokofa@gmail.com Add : Jl. Imam Bonjol No. 75 Cibodas – Tangerang



Vol. 66  
2020/03



## ‘코로나 0명’ 인도네시아, 자국민에 한국 여행 자제 권고

입국 제한 등 강경 예방 조치할까…한국 교민사회 큰 걱정  
일본 NHK “인니 다녀온 60대 확진” …인니 정부 “정보 못 받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0명이라고 주장하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24일 자국민에게 한국 여행 자제를 권고했다.

인도네시아 외교부는 이날

“한국에 있거나 여행할 예정인 분은 주의하고, 특히 대구와 경상북도 지역은 여행하지 말라”고 권고를 내놓았다.

인도네시아 교민 사회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한국인의 입국 제한 등 강경한 예방조치에 나설까 걱정하는 상황이다.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한국인 입국 제한과 한-인니 항공 노선 운항 중단 조치가 있는지 문의가 쏟아졌으나 현재까지 인도네시아 정부의 움직임은 없다”며 “한국의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한 만큼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도네시아 외교부,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과 소통 채널을 열어두고 혹시라도 제한 조치가 내려진다면 사전에 통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자카르타 노선을 주 7회 매일 운항하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도 “회사 자체적으로 운항을 축소

할 계획은 없지만,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관련 결정이 있을까 우려하며 모니터링 중”이라고 말했다.

해당 노선은 최근 탑승률이 50% 선으로 급감한 상태다.

교민 정도씨는 “지난 주중만 해도 인도네시아의 확진자가 진짜 0명이 맞는지 우려했는데, 한국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인도네시아 걱정할 상황이 아닌 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4시 기준으로 한국의 확진자는 833명으로 집계됐다.

재인도네시아 한국 교민사회와 주재원들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중국에 했던 것처럼 한국에 제한조치를 하면 피해가 막심하다고 큰 걱정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달 5일부터 14일 이내 중국 본토 방문자의 입국을 제한하는 한편 중국인 무비자 입국·비자발급을 중단했고, 같은 날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중국 본토를 오가는 모든 여객기 운항을 중단했다.

주인도네시아 중국 대사가 기자회견을 열어 “과잉반응하지 말라. 인도네시아 투자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그대로 시행했다.

인도네시아 이민국은 23일 “지난 5일부터 전국 출입국사무소에서 총 118명의 외국인 입국을 거부했다”며 “이들은 중국 본토에서 출발하거나 환승한 지 14일이 안 지났기 때문에 입국시킬 수 없었다”고 발표했다.

발리섬에 있던 중국인 관광객 5천여명은 여객기 운항이 중단됨에 따라 발이 름였다

가 중국 정부가 전세기를 보내 일부 돌아가고, 나머지는 체류 기간을 연장하거나 우회노선을 이용했다.

한국 교민·주재원들은 지금

한국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입국 제한 조치가 내려지면 인도네시아에 한동안 못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출장·방문 계획을 속속 취소 또는 연기했다.

인도네시아 축구 국가대표팀

신태용 감독도 3월에 한국을

다녀올 예정이었으나 현지 축구협회장이 만류했다고 전했다.

자카르타 시내 호텔의 한국인 매니저는 “오늘 아침 한국인 출장자들의 예약 취소 문의가 잇따랐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중국산 원·부자재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3월 자재 대란’을 우려하던 재인니한국 봉제·전자 제조업체들에 이어 대기업 현지법인, 자영업자들까지 인도네시아 정부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국내외에서 여러 의구심이 제기되지만, 인도네시아 내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0명

이다.

다만, 싱가포르에서 가사도 우미로 일하던 인도네시아 여성(44)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회복했고, 일본 요코하마 항에 정박한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의 인도네시아인 선원 78명 가운데 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처음에 4명이 양성 반응을 보였으나 이후 더 늘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5일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의 나머지 자국인 선원들을 전세기나 선박으로 귀환시킬지 결정한다.

일본 NHK 방송은 22일 “지난 15일부터 인도네시아를 방문했다가 19일 귀국한 60대

도쿄 거주 남성이 귀국 직후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입원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NHK 방송은 “해당 남성은 앞서 12일 감기 증세가 있어 병원에 갔으나 폐렴 진단을 받지 않아 집으로 돌아간 뒤 15일부터 가족 휴가를 위해 인도네시아에 다녀왔다. 상태가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일본 정부로부터 관련 정보를 넘겨받지 못했다”며 “우리는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인도네시아 어느 지역을 방문했는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이웃 나라 브루나이는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을 고위험 감염국으로 지정하고 입국 후 자가격리를 하지는 않지만, 14일간 건강 상태를 관찰하고 있다.

[연합뉴스]

## 옴니버스 법 일자리 창출 법안, 신생 기업에 외국인 취업 허가 면제



법안에 따르면 신생 기업에 대해 이사와 감사, 직원, 전문 훈련 지도원, 출장자, 단기 체류 연구원, 생산 기계의 긴급 수리 담당자에 대한 취업 허가 취득이 불필요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대사관이나 영사관 직원만 면제됐다. 다만 신생 기업의 정의와 구체적인 직종, 허가 기간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아 대통령령으로 세부사항을 결정한다.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협회(idEA) 관계자는 “기술지도하는 외국인이 증가함으로써 신생 기업에게는 디지털 인재의 부족을 커버할 수 있고 기술이전도 추진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HKI PT.HANJIN KONSTRUKSI INDONESIA**  
**HJ PT.HANJIN INDONESIA JAYA**

고객의 미래를 함께 건설합니다.

인도네시아 모든 지역에서 한진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플랜트 / 건설 / 토목

## 박연자 회장 별세

### 밀양 산골서 태어나 국내 신발산업 거목으로…

국내 신발산업의 거목 박연자 태광실업그룹 회장이 31일 오후 3시 별세했다.

고 박연자 태광실업그룹 회장은 자타 공인 국내 신발산업의 거목이다.

박 회장은 1945년 11월 밀양시 산골짜기인 산내면에서 5남 1녀 중 넷째로 태어났다.

찌든 가난속에서 어려운 성장기를 보낸 대표적 자수성가형 기업인이다.

1966년 월남전 파병군으로 자원입대해 1968년까지 44개월간 복무하기도했다.

월남 파병 시절 사업에 대한 흥미와 재능을 발견하면서 1971년 부산에서 정일산업을 창업해 사업에 첫발을 들었다.

이후 1980년 경남 김해에 옮

기면서 태광실업으로 법인명을 전환하고, 이날 임종 직전 까지 50여 년간 그룹 경영에 힘을 쏟아왔다.

고인은 평소 “돈을 쓰기보다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강조해 오면서 ‘신뢰의 경영철학’을 내세웠다.

이를 기반으로 맨손으로 국내 신발산업의 부흥기를 이끌어 신화창조를 이룬 기업가로 주변에서 평가하고 있다.

사업 초창기 시절 운영자금 부족과 경영환경 탓에 여러 차례 부도 위기와 경영난 등 숱한 역경과 어려움을 마주하면서도 특유의 돌파력으로 이를 극복했다.

이어 1987년에 전 세계인의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1994년에는 신발업계 최초로 베트남에 진출해 현지법인 태광비나실업을 설립했다.

베트남 진출과 사업 성공으로 2000년 베트남 명예영사 취임과 2003년 부산~베트남 직항로 개설 등 지속적인 한·베트남 양국 교류 협력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해오면서 민간 외교관으로서도 국익에 큰 기여를 했다.

신발회사에서 사업 다각화로 그룹으로 성장시켰다.

2006년 정밀화학회사 휴켐스를 인수한 박 회장은 신발을 넘어 사업 다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이어 2008년 태광파워홀딩스 설립, 2010년 베트남복바이 오픈, 2012년 일렉테크놀러지 인수, 2013년 정산인터내셔널 설립과 2014년 정산애강(前 애강리메텍)을 인수했다.

따라서 현재 태광실업그룹은 신발을 비롯해 화학과 소재, 전력, 레저를 아우르는 15개 법인 운영, 2019년 기준 매출 3조 8000억 원에 이르고, 임직원 10만여 명 규모의 견실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박 회장의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공헌도 남달랐다 태광실업그룹은 1999년 재단법인 정산장학재단을 설립을 시작으로 국내외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장학사업, 재난기금, 사회복지, 의료, 문화, 스포츠사업 등 현재까지 600억 원이 넘는 규모로 지원해 오고 있다.

또 박 회장은 1988년 제25회 무역의 날 대통령 표창과 1997년 제34회 무역의 날 금



▲ 사진은 생전 박연자 회장 모습. 태광실업그룹 제공

탑산업훈장, 2003년 베트남 친선훈장, 2008년 캄보디아 공로훈장, 2013년 제50회 무역의 날 대통령 표창, 2014년 고용창출 우수기업 선정 대통령상 등을 받았다.

이외에도 사단법인 국제장애인협의회 부회장과 대한레슬링협회 부회장, 제5대 한국신발산업협회 회장, 제6~8대 김해상공회의소 회장 등을 역임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발자취를 남겼다.

박 회장은 2009년 ‘박연자 게이트(박연자 정·관계로 비 사건)’로 정·관계를 뒤昏들었다가 2014년 2월, 2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당시 재계 순위 600위권이었던 태광실업의 수사에 대검 중수부와 서울지방국세청이 뛰어든 것을 두고 ‘표적 수사’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신정화씨와 아들 박주환 태광실업 기획조정실장, 딸 선영 씨, 주영(정산애강 대표), 소현(태광파워홀딩스) 전무 등이 있다.

태광실업그룹은 “유족들이 조용히 장례를 치러달라는 고인의 뜻에 따라 조문과 조화를 정중히 받지 않기로 했다”며 “빈소와 발인 등 구체적인 장례일정도 외부에 알리지 못함을 너그레이 양해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부산일보



▲ KOFA 이종윤 회장과 KOCHAM 송창근 회장의 조문



▲ 태광 수방공장의 분향소에서 회사 사원들의 조문

**LIGHT+**  
The Solutions of LED

**LED 조명**



LED Module Light SSM



LED Street Light S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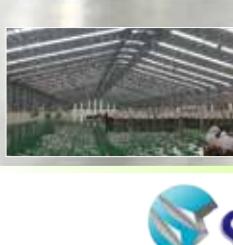
HIGHBAY UFO



LED TUBE T8

**인니 현지 생산  
가성비 최고  
품질 완벽보장**

한국부품을 사용해 수입품에 비해 가성비 극대화  
인니 판매를 위한 SNI, TKDN, SUKOFINDO, ISO9001등 완벽한 인허가  
적정 재고보유로 소량 및 대량주문에도 정확한 공급가능  
현장 맞춤형 특수스페제작 및 품질보증과 신속한 A/S



SCTC

PT. Surya Citra Teknik Cemerlang (LIGHT+)

JL. Raya Narogong Pangkalan 1B, Bantar Gebang, Bekasi 17151  
TELP : (021) 8262 7380 Fax : (021) 8263 4261

한국인 상담 : 0816 857 404 Email : sungleejkt@gmail.com

## 印尼 ‘옴니버스 법’ , 주별 최저임금 산출 방법 변경



인도네시아 정부는 내용이 중복되는 법령을 통합한 ‘옴니버스 법’ 중 ‘일자리 창출’에 관한 법안에 대해 주(州)별 최저임금(UMP□Upah Minimum Provinsi) 산출 방법을 변경한다.

종래에는 전국 수준의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을 가산하고 있었지만, 법이 통과되면 주의 경제 성장률을 그대로 다음 해의 최저임금 상승률로 한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상승률은 주마다 다른 숫자가 되어, 인플레이션이 가미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다 낮은 상승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폭은 대체

로 중앙정부가 결정한 인상폭인 8.51%였다.

법안은 이 밖에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일할 수 없는 직원에 대해 기업에 부과하던 임금 지급 의무에 관한 항목도 변경된다.

현행 규정에서는 처음 4개월 동안 급여의 전액, 다음의 4개월은 75%, 다시 다음의 4개월은 50%로 떨어지고, 그 후는 해고까지 25%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었지만 이 부분이 삭제되었다.

‘병’, ‘부상’, ‘생리’ 등의 용어도 ‘(일하는 데 있어서의) 장애’라고 정리했다. 신법으로 기업의 임금 지급 의무가 어느 정도 면제될지는 현시점에서는 불분명하다.

한편 아이르랑가 하르따르또(Airlangga Hartarto) 경제조정부 장관은 옴니버스 법이 실현되면 투자가 분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화승, ‘디앤액트’로 새롭게 출발



‘르까프’, ‘케이스워스’를 전개하는 화승이 사명을 디앤액트로 변경하고 김건우 대표와 임직원들이 6일 서울 금천구 디앤액트 본사에서 CI 선포식을 진행하고 있다.

디앤액트’는 ‘꿈꾸라, 그리고 행동하라(Dream and Action)’는 의미로, 오리지널 스포츠 정신(DNA)과 대한민국 대표 스포츠 기업으로서 새로운 출발과 도약을 나타내

고 있다.

디앤액트는 1953년 한국 신발 1호로 알려진 기차표 고무신의 동양고무공업주식회사로 시작했으며 1986년 르까프를 런칭해 34년째 운영해오고 있다.

한편, 디앤액트는 2019년 1월 31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였으며, 2019년 12월 기점으로 아웃도어 브랜드 머렐의 사업을 정리했다.

법원은 디앤액트의 회생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고, 경영진의 기업회생 의지가 높은 점을 반영하여 지난 1월 31일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내렸다.

## 조기조 교수의 경제정책

### 브라우저와 유튜브



조기조 교수

브라우저로 웹페이지를 보려면 HTTP(Hyper Text Transfer Protocol)나 HTTPS(~ Secure)로 시작하는 주소(URL)를 입력해야 한다. 웹 페이지는 하이퍼텍스트(혼합문서)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이퍼텍스트는 HTML(Hyper Text Markup Language)이라는 프로그램으로 글과 그림, 동영상 등을 엿어 만든 것이다. HTTPS는 이용자가 자판을 입력하면 컴퓨터는 이를 암호화해서 보내도록 한다. 중간에 누가 이 정보를 가로채어도 그 내용을 알 수 없도록 민감한 정보를 소통할 때 쓴다.

1980년대 후반에 팀 버너스 리는 인터넷 기반의 하이퍼텍스트 시스템인 월드 와이드 웹을 개발하였다. 1991년, 팀 버너스 리는 ‘월드 와이드 웹’이라는 세계 최초의 웹 브라우저를 소개하였다. 곧 ‘월드 와이드 웹’과 헛갈리지 않도록 넥서스(Nexus)로 이름을 바꾸었다. 그러나 당시에 한국의 일반인들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었고 PC통신을 사용하다가 인터넷이 상용화 된 90년대 중반에 들면서 웹의 맛을 보게 된다.

인터넷 화면을 열어보는 브라우저 프로그램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익스플로러가 대세였다. 그 사이 수많은 브라우저가 떴다가 가라앉았다. 조창기에는 넷스케이프의 내비게이터(Netscape Navigator)가 드세하였는데 어느 사이 익스플로러가 그 자리를 차지하더니 서서히 크롬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크롬은 오래전부터 인공지능을 활용한 번역기능을 제공해 외국어로 된 웹사이트를 다른 나라 글로 번역해 주어서 전혀 모르는 언어로 된 웹페이지도 볼 수 있어 좋다. 특히 한일간의 웹사이트 번역은 거의 문제가 없을 정도로 정확도를 보여서 참 편하다.

웹 브라우저 시장의 통계는 나라에 따라 다르다. 2019년 4월 기준, 한국의 웹브라우저 점유율은 크롬(구글) 63.6%, IE(인터넷 익스플로러) 24.6%,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등이다.

브라우저는 그렇다 치고 유튜브를 보자. 돈이 될 줄을 예측한 구글이 2006년에 유튜브를 인수해 계속 투자를 했다. 소위 판 키우기를 한 것이다. 이제 독보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플랫폼을 제공하는 갑의 유튜브가 을인 유튜버들에게 제공하는 수익의 기본 조건은 구독자 1천명 이상에 연간 동영상 시청시간이 4,000시간을 넘어야 한다. 구독자 3만 명인 한 유튜버는 월 수

익이 100만 원 정도라 하고 한 푼이라도 수익을 내는 유튜버는 1%가 되지 않을 것이라 하니 참고 하시길. 또, 유튜브는 수익을 내기 위해 일반 이용자들에게 광고를 한다. 짜증날 정도로 광고가 늘었다. 광고가 싫으면 돈 내고 광고 없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받으라고 한다. 프리미엄 서비스는 만만치 않은 월 8,690원이다. 또 유료 콘텐츠도 제공한다. 요즈음 화제의 작품으로 회자되는 영화 ‘기생충’은 대여 2,500원에 구매 6,500원이다. 1분마다 400시간 분량의 동영상이 업로드 된다는 데 올리는 사람의 제약은 없다. 아무리 메모리가 싸졌다고 해도 그걸 다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싶기는 하다. 어느 사람, 어느 기업, 어느 프로그램이라도 너무 쓸리면 독점의 폐해가 생긴다. 유튜브가 익스플로러의 전철을 밟을까 걱정이다. 돈이 벌릴 때 잘 해서 수성(守城)을 하는 것이 옳다. 기억하라! 박리다매(薄利多賣)가 그냥 격언이 된 게 아니다.

#### 조기조(曹基祚 Kijo Cho)

경남대학교에서 30여 년간의 교수직을 마치고 명예교수로 있다.  
Korean Times of Utah에서 오래도록 번역, 칼럼을 써 왔다.

최근에 ‘스마트폰 100배 활용하기’를 내었다.(공저)

현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이사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비상근)

[\(kjcho@uok.ac.kr\)  
\(82\) 10-9080-2449](mailto:kjcho@uok.ac.kr)

도서출판/인쇄  
**광개토**  
PRINTING COMPANY

## 상상 그 이상의 속도와 퀄리티! 디지털 프린트 서비스 시작합니다!



도서출판/인쇄기업 광개토는 고객의 요구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2020년부터 디지털프린트 사업을 시작합니다.

소량 인쇄는 물론 완벽한 고퀄리티를 제공하고자

디지털프린트기를 도입해

고객만족의 폭을 넓히겠습니다.

광개토는

지속적인 고객요구에 귀 기울이며 항상 고객과 함께 고민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 명함 : 컴포트 후 익일배송

■ 카다록, 브로슈어외 : 1권부터 가능

■ 다양한 재질의 인쇄 가능

제작 문의 : 021 3002 9087 / 0858 9060 0962  
[pt.kwanggaeto@gmail.com](mailto:pt.kwanggaeto@gmail.com) / [khong3000@gmail.com](mailto:khong3000@gmail.com)

## 인니 우선 개발 프로젝트에 자카르타-스마랑 고속철도 건설 계획 포함

인도네시아 정부가 발표한 2020~24년의 국가중기개발계획(RPJMN)의 우선 개발 프로젝트 41건에 수도 자카르타와 중부 자바주 스마랑 도시를 연결하는 고속철도의 건설 계획이 포함되었다.

일본이 지원하고 있는 자카르타와 동부 자바주 수라바야를 잇는 기존 철도의 준고속화 계획의 일환이다.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인도네시아 사무소의 담당자는 “스마랑까지 우선 고속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현지 매체 드 닷컴에 따르면, 자카르타-스마랑 고속철도가 완공되면 소요 시간은 현재 5시간에서 3시간 반으로 단축할 수 있다.

정부는 자카르타-서부 자바주 반동 고속철도와 함께 사업비를 100조 루피아로 잡았으며, 58조 루피아를 국가 예산, 42조 루피아를 민간에서 각각 조달하는 민관협력(PPP) 사업으로 한다는 방

침이다.

JICA 인도네시아 사무소의 담당자는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카르타-수라바야 구간을 최종적으로는 전면 고속철도화할 것을 제안했으며, 스마랑까지를 1단계로 진행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준고속화 계획 자체가 아직 타당성 조사 중인 단계로 현 시점에서는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타당성 조사는 5월 완료를 예정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바뻬나스, Bappenas) 관계자도 자

카르타-스마랑 고속철도 계획에 대해 “아직 설계 단계이며 노선 등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언급했다.

한편 2020~24년의 RPJMN은 조코 위도도(통칭 조코위)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서명했다. 고속철도 외에 관광지 개발과 팜유



래 ‘그린 연료’ 증산 등도 포함된다. 41건 모두의 총 사업비는 7,400조 루피아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 인니 세관 원산지증명서 서류제출, 3월부터 면제

한-인도네시아 전자적 원산지 정보 교환시스템(이하 EODES: 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이 3월 1일부터 개통된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수입 시장이 원산지증명서(이하 C/O)를 인도네시아 세관당국에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26일 관세청(노석환 청장)이 밝혔다.

종전에는 FTA 특혜관세 신청시 C/O 원본제출이 필수여서, 국제

우편 또는 특송을 통한 C/O 송부 및 수입국 세관의 C/O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심사로 물류업체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관세청은 이번 한-인도네시아 간 EODES 구축으로 양국간 FTA 활용률은 9.6% 증가, 관세 및 물류비용은 연간 56억 상당이 절감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와의 C/O 관련 통관 애로는 원천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고있다.

관세청은 정부 신남방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아세안 전체 GDP의 약 40%를 차지하는 핵심국가인 인도네시아와의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양국간 EODES를 도입하기 위해 ‘18년말부터 인도네시아 관세당국 고위급 초청, 현지 직접방문 협의, 영상회의 개최, 수십차례 실무자 회의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번 양국간 EODES 구축은

‘16.12월 한-중국 간 EODES 구축 이후 두 번째이자 아세안 등 신남방국가와는 최초로 도입한 사례로 우리기업의 대인도네시아 FTA 활용 확대에 획기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촉진과 FTA 활용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히며, 수출입과 관련한 현장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관세청에 지원 요청할 것을 당부하였다.



한국 점유율 1위 !

## 한신 에어 콤프레셔

콤프레셔하면 한신입니다!



### 한신 신제품 출시

1. AT 시리즈:  
기존 인버터보다 **4%** 더 에너지절약 가능한 모델
2. GRH5G 시리즈:  
**냉각 성능 10% UP!!**  
**오일 함유량 10% DOWN!**
3. HBH 시리즈: 5~20마력 소형 오일프리

대표 / 유성열 : 0812 8037 0303 담당 / 한상윤 과장 : 0822 9999 1447  
**TANGERANG** Ruko Tataka Puri Block C1No.25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Email : hanshin2009@hotmail.com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Fax : 021 5949 4666

담당 / 정연오 이사 : 0815 1938 0006  
**JEPARA** Ruko, Jl. Gotri Jepara, Ds. Kalipucang Wetan RT. 001 RW.  
002 No. 3 & 4 Kec. Welahan Jepara – Jawa Tengah  
Email : hanshin2009@hotmail.com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Fax : 021 5949 4666

**상상 그 이상의 속도와 퀄리티!**  
**디지털 프린트 서비스**  
**시작합니다!**

- 명함 : 컴포트 후 익일배송
- 카다록, 브로슈어외 : 1권부터 가능
- 다양한 재질의 인쇄 가능

카다록 / 도서출판 / 브로슈어 /  
명함 / 스티커 / 라벨 / 카렌다 /  
행택 / 기타

**제작 문의**  
021-3002-9087  
0858-9060-0962  
pt.kwanggaeto@gmail.com  
khong3000@gmail.com

**세금문제로 고민하십니까?**  
**세금문제(부가세 환급, 세금 경감) 대행**

**비밀 보장과 깔끔한 마무리 해드립니다!**

**PT. JOAKIM INDONESIA CONSULTING**  
Menara Jamsostek Tower N Lt.3, Jl. Gatot Subroto  
Kav.38, Jakarta 12710  
상담문의 : 0813-1761-9876 (사무장)

**TOILON**  
ROOF  
SINCE 2003  
단열재 지붕 벽체 전문생산업체

**쾌적한 균형환경은 친환경 단열이 우선!**

**토일론 단열 지붕의 장점**

1. Anti Panas 단열효과
2. Anti Bising 흡음효과
3. Anti Api 난연효과
4. Anti Air / Water Proof 방수효과
5. Anti Fungal, Kimia 항곰팡이, 항산성 및 알칼리
6. Simple and Quick Construction 빠르고 간편한 시공
7. Long Duration 오랜 수명

**PROFILE**

전제품 8mm Polyethylene Foam 열집착

1. 35mm Trimdek
2. 25mm Trimdek
3. 35mm Spandek
4. Boltless-Seaming Type 110mm (Roll on Site)
5. Boltless-Seaming Type 55mm
6. Genteng Metal (기와)

Top Coat  
Substrate AZ 150  
Base Metal  
Polyethylene Foam 8mm

저희 회사 전 제품의 철판은 호주가 본사인 PT. NS BLUE SCOPE INDONESIA로부터 공급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제품은 8mm Polyethylene Foam을 열집착하고 있습니다. Aluminium Foil 부착제품도 생산합니다.

공사건설현장

Parkland Indonesia Posco Indonesia

## 한국 신발 · 봉제 기업,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이유는



▲ KOFA 회의실에서 한인사 집필위원과 KOFA 주요인사들이 한국기업 진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0.02.13. [데일리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한인100년사’ 편찬위, 재인니봉제 협회와 신발협의회 각각 간담회

1980년대 후반기 우리나라 신발 · 봉제 기업들은 인도네시아로 대거 몰려간다. 우리나라에서 민주화에 따른 노동쟁의의 증가, 임금상승에 따른 제조비용 상승이 주요 원인이다. 이로 인해 1980년대 중반기 1천500명 정도의 현지 한인 수가 1990년대 초에는 1만명에 육박한다. 1990년 전후로 인도네시아 한인공동체는 양적으로 팽창하면서 큰 변혁기를 맞았고, 인도네시아 경제와 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킨다.

올해 9월 출간을 목표로 집필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인도네시아 한인100년사’ (가제) 집필진은 최근 인도네시아 한인공동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재인도네시아 한국봉제협회 (KOFA)와 재인도네시아 한국신발협의회 (KOFA)의 주요 인사들을 각각 만나, 각 업종의 과거와 현재의 영역과 성쇠 그리고 미래의 비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난 2월 13일 땅그랑에 있는 KOFA 사무실 열린 KOFA와의 간담회에는 이종윤 회장(SMI 사장), 하연수 고문(서린 사장), 강호성 수석부회장(ACMI 사장), 윤범수 부회장(아시아 케미칼 사장), 박길용 사무총장(한영 법인장), 강재홍 부사무총장(실크로드 디자인연구소) 등, 한인사편찬 위원에서는 신성철과 조연숙 한인사 집필위원이 참석했다.

30년이 넘게 인도네시아 신발업종에서 종사하고 있는 하연수 고문은 “1980

년대 후반기에 한상기업인 코린도그룹이 인도네시아에 서 처음으로 한국계 스포츠화 제조업체인 ‘가루다인다와’ (브랜드명 이글)를 가동했다”며 “우리 신발업체들이 1980년대 후반기 어쩔 수 없이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겨야 할 시점에 가루다인다와는 해외 이전을 앞둔 한국 신발업체에 표준이 됐다고 회고했다.

초창기부터 가루다인도와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하 고문은 “1980년대 한국 스포츠화 제조업이 세계 패권을 잡았으나, 이제는 타이완에 넘어갔다”며 “인도네시아에서 그 영광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말문을 열었다.

인도네시아 진출 초창기에 한국계 신발업체들은 OEM(주문자제조) 방식으로 수출

다”고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설명했다.

이종윤 회장은 “최근 주요 스포츠화 바이어들의 탈중국이 가속화되고 주문이 인도네시아로 넘어오고 있다”며 “향후 10년 이상 인도네시아에서 스포츠화 산업이 활황을 이룰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지난 10일 자카르타 한인회 회의실에서는 KOGA 주요 인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재한 한인회장, 안창섭 KOGA 회장, 문효건 전 KOGA 회장이 완주 전 KOGA 회장, 김동석 KOGA 사무총장 등, 한인사 편찬위원회에서 신성철, 조연숙, 홍석영 편찬위원이 참석했다.

1980년대 후반기 신발업종과 함께 같은 시기에 봉제업 종도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현지 한인사회에 양대 산맥을 형성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효건 전 회장은 “1990년 전후로 한국 봉제업계가 인도네시아에 처음 진출해 생산성이 기대 못 미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제는 한국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직원들은 숙련됐을 뿐만 아니라 책임감과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급 인재로 성장해 각 회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완주 전 회장은 1988년부터 한국 봉제업체들은 주로 상사를 중심으로 인도네시아에 먼저 진출했는데, 이는 앞



▲ 한인회 회의실에서 한인사 집필위원과 KOFA 주요인사들이 한국기업 진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0.02.10. [데일리인도네시아]

중심의 생산을 하면서도, 당찬 포부를 안고 자체 내수 브랜드를 키우기도 했다. 가루다인다와는 ‘이글(Eagle)’, 동조인도네시아는 ‘스포텍(Spotec)’ 그리고 태화인도네시아는 랑포드(Langford) 등이 그것이다.

윤범수 부회장은 “1980년대 후반기에 인도네시아에서 처음 공장을 가동할 때 현지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고, 작업공정에 대한 인도네시아어 표준설명서가 없어서 현지 직원과 갈등과 마찰로 힘든 시기를 보냈

서 상사들이 목재 등 다양한 사업을 인도네시아에서 펼치면서 현지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이며, 다른 동남아 국가 가운데에서도 인도네시아를 투자지로 낙점한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한인사 편찬위원회는 인도네시아 한인사의 큰 줄기인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사를 집필하기 위해 각 분야에 오랜 기간 현지에서 기업경영 경험을 풍부한 한인들로부터 조언을 받고 있다.

[데일리인도네시아]

신발산업 가운데 스포츠화의 경우 1970년대까지는 일본이, 1980~1990년대 초까지는 한국이, 1990년대 이후에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와 중국이 전 세계 공장 역할을 맡고 있다. 1980년대 후반기 한국사회 민주화에 따른 노동쟁의 증가, 가파른 원화 절상 및 임금 상승에 따른 제조비용 상승으로 채산성이 급격하게 악화하면서 국내 노동집약형 중소기업들이 해외진출을 모색하게 됐고, 대상지로 동남아와 중국이 부상했다.

당시 한국과 대만의 신발제조업체들이 대거 동남아와 중국 등지로 생산기지를 이전시킨 배경에는 나이키, 리복, 아디다스 등 글로벌 브랜드의 빅바이어들이자 브랜드 마케팅 기업들이 개발도상국인 동남아와 중국 등으로 OEM(주문자상표 부착생산) 수입선을 대거 전환했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는 1990년 전후 한국의 중소자본이 가장 선호한 투자대상국으로, 짧은 기간 동안 노동집약적 부문을 중심으로 한국 기업들이 '최초이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졌다.

1980년대 후반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중국과 베트남과 정식 수교 이전 시기였던 만큼 부산에 밀집되었던 한국 신발제조업체들이 초기 이전을 고려한 국가는 태국과 인도네시아였다. 1960년대 후반부터 원목개발과 합판제조, 건설 등 한국 기업들이 이미 현지에 진출해 있었던 터라 인도네시아 투자는 진출에 따른 초기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으로 작용했다.

#### 1985년부터 인도네시아 금융 위기인 1998년까지 초창기 진출 기업

우리나라 신발제조업체의 인도네시아 진출은 1985년 코린도그룹 자회사인 가루다(PT. Garuda Indawa)가 첫 테이프를 끊었다.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까지 성화(PT Sung Hwa Dunia), 프라타마(PT. Pratama Abadi Industri), 동양(PT. Tongyang Indonesia), 동조(PT. Dong Joe Indonesia), 태화(PT Tae Hwa Indonesia), 스타윈(PT. Starwin Indonesia), 도손(PT Doson Indonesia), 코리네시아(PT Korinesia) 금강제화

## 인도네시아 속 한국 신발산업

글: 신성철 한인100년사 편찬위원, 데일리인도네시아 대표



▲ 첨단 자동화 설비를 갖춘 '파크랜드 월드 인도네시아(PT)'의 중부자바주 즈빠라 공장. 2016.9.8 [데일리인도네시아 자료사진]

등이 대규모 생산설비를 구축하고 OEM 방식의 생산 체제를 구축했다.

1990년대 초반 한국이 중국과 베트남과 수교하면서 두나라는 우리나라의 주요 투자지로 부상했다. 이를 계기로 글로벌 신발산업에 각각 변동이 일어났고, 인도네시아 신발업계가 어려움에 직면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993년 이후 인도네시아 최저임금 인상률이 연간 10%를 상회함에 따라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비 절감 효과가 낮아진 동시에 한국에서 더 가까운 중국과 베트남이 대안 생산기지로 부상했다. 하지만 2008년 베이징 하계올림픽 계기로 중국의 생산원가가 급속도로 인상되면서 중국으로 진출했던 한국계 기업 중 일부는 한국으로 U-턴하거나 인도네시아로 재이전하기도 했다.

한편 인도네시아에서 한국계 신발제조 투자기업들은 1980년대 중반 이후 반ден 주 땅그랑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식 대량생산 제조라인이 설치됨에 따라 OEM 방식의 유명 브랜드 주문을 유치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지에서 직접 경영방식을 채택한 우리 신발기업은 해외투자 경험이 없었고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현지 노동자들과 갈등과 마찰을 빚어 적지 않은 사회문제로 부각되기도 했고, 이는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와 인도네시아 진출에 큰 교훈이 됐다.

의 한국계 신발기업의 존속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에 1세대로 분류될 수 있는 인도네시아 내 한인 신발기업인 성화, 가루다, 동조, 스타원, 코리네시아, 태화, 성화 등이 2005년을 전후하여 폐업 절차를 밟는다.

#### 2000년 이후 현재까지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침체된 신발산업이 2005년 파크랜드(PT Parkland World Indonesia)의 풍원제화 인수를 계기로 현지 한국 신발제조업계가 다시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이어 창신(PT Chang Shin Indonesia)과 태광(PT Tae Industrial Indonesia) 등 대규모 한국 신발기업의 투자가 이어지면서 신발업계가 제 2의 도약기를 맞는다.

인도네시아 진출 초창기 우리 기업들은 반덴 주 땅그랑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식 대량생산 제조라인이 설치됨에 따라 OEM 방식의 유명 브랜드 주문을 유치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지에서 직접 경영방식을 채택한 우리 신발기업은 해외투자 경험이 없었고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현지 노동자들과 갈등과 마찰을 빚어 적지 않은 사회문제로 부각되기도 했고, 이는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와 인도네시아 진출에 큰 교훈이 됐다.

2004년 수실로 밤방 유도요

노 대통령 집권 후 인도네시아 정치와 사회가 안정되고 대외여건이 변화하면서 제조업이 회복하기 시작했고, 재인니한국상공회의소(Kocham)와 재인니한국신발산업협의회(KOFA)를 중심으로 다시 반등의 기회를 마련했다. 최근 자바 섬 내 최저임금 차별화의 이점과 조코 위도도 정부(2014~2024년)의 국토 균형 발전 정책에 부응하여 중부 자바주 주도 스마랑 주변의 즈빠라 지역과 살라피가, 브레베스 등지에 대규모 생산기지를 조성하고 있다. 2016년 이후 한국계 신발업체의 인도네시아 내 이동(반덴주에서 중부자바 또는 서부자바 외곽지역)이 가속화돼 화승, 파크랜드, KMK, 프라타마, 창신, 태광 등 대기업들이 이러한 대이동을 주도하고 있다. 아울러 인도네시아 내 한국계 신발업체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생산시스템을자동화하는 장치산업으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008년 인도네시아 스포츠화 제조업이 다시 활력을 찾을 무렵 재인니한국신발산업협의회(KOFA)가 설립되어, 2009년 11월 초대 회장으로 송창근 KMK 그룹 회장을 선임했다. 이어 제 2기 송창근 회장(2012~2013), 3기 신만기 회장(파크랜드, 2014~2015), 4기 신만기 회장(2016~2017), 5기 신만기

회장(2018~2019) 그리고 6기 이종윤 회장(프라타마 그룹 PT. SMI, 2020 현재)이 바통을 이어 받았다.

2020년 현재 KOFA는 신발제조회사 20여개 회원사와 자재 및 임가공 회원사 180여개 등 총 200여개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다. 회원사는 한국인 근로자 2천여명과 현지인 근로자 25만여명을 고용해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아식스 등 글로벌 브랜드 제품을 연간 1억3천200만 켤레, 총 35억 달러 매출액을 기록해 인도네시아 수출실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KOFA는 현지에서 회원사의 비즈니스 활동 외에도 △회원사의 권리 보호 및 정보 공유 △최저임금 관련 협의 및 대책 수립 △KOFA 소식지인 '코파의 힘' 및 연간 통합본 발행 △현지 빈곤층 지원과 재해 시 성금 및 생필품 지원 등 지역사회봉사 △신발 관련 전시회, 세미나 참관 및 주최 △코파 총회 개최 등 다양한 활약을 통해 회원사는 물론 지역사회에게 기여하고 있다. 최근 중국과 동남아국가 현지 인건비 지속적인 상승 그리고 국가 및 지역 차원의 산업 정책의 변화 등에 따라 해외에 대규모 생산기지를 운영 중인 기업들은 생산비 증가와 경영한계에 직면했다. 다른 한편 로봇 및 3D 스캐닝 및 프린팅 기술의 혁신 및 도입 속도가 빨라지면서 신발산업 내에서 고기능·고품질 제품은 기술 수준이 높고 시장이 가까운 본국으로 유턴하는 경향도 보였다. 하지만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인 아디다스가 '4차산업혁명 교과서'로 평가돼 온 독일·미국 내 스피드 팩토리(Speed Factory)를 2020년 4월까지 폐쇄하기로 했다. 본사가 위치한 독일로 생산시설을 유턴한 지 불과 3년 만이다. 다만 독일 인더스트리 4.0(Industry 4.0)의 대표 사례로 거론되는 독일 안스바흐의 아디다스 스피드 팩토리 사례나 최근 중국에서 부산으로 유턴하는 한국기업들의 사례는 신발산업의 미래 역동성이 얼마나 크며 이에 대한 선제적인 준비가 필요함을 잘 보여준다.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신발산업은 제3의 도약기를 맞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글로벌 신발 브랜드들의 중국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생산과 소비 중심지로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 급부상하고 있는 시점에 현지에서 우리 기업들은 자동화와 혁신을 통해 미래의 신발산업을 준비하고 있다. (끝)

#### 참고문헌

- '코파의 힘', 재인니한국신발협의회 정기 간행물
- 엄은희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신발산업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변화와 한인기업공동체의 공간전략'
- 뉴스미디어 데일리인도네시아

## 부디 교통장관, 자카르타~반동 고속철도 수라바야까지 연장



인도네시아 부디 까르야 교통장관은 향후 자카르타~반동 고속철도를 수라바야까지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지 언론 땐 빼 24일자 보도에 따르면 부디 까르야 교통장관은 23일 란짜에тек 자카르타~반동 고속철도 공사 현장을 시찰했다. 부디 까르야 장관은 "자카르타~반동 고속철도 사업이 성공한다면 초기 계획에 따라 수라바야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공사 시찰 현장에는 부

디 까르야 교통장관과 함께 줄피그리 교통부 철도국장, 국영 철도 KAI의 에디 전무이사 등도 함께했다.

부디 장관은 이어 "수백 명의 중국 노동자들이 기술 이전과 함께 공사 진행 중으로 당초 목표로 설정했던 2021년 말까지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자카르타~반동 고속철도 부설 사업은 인도네시아 중국 고속철도(KCIC)가 수행하고 있는 국가 전략 프로젝트 중 하나이다. KCIC에 따르면 공사 진행률은 43.45%, 토지 취득률은 99.96%에 달했다.

#### 참고문헌

- '코파의 힘', 재인니한국신발협의회 정기 간행물
- 엄은희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신발산업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변화와 한인기업공동체의 공간전략'
- 뉴스미디어 데일리인도네시아

## 노스페이스 친환경 신발 2종 출시



노스페이스는 천연 올 소재를 적용한 친환경 신발 2종을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시즌 출시되는 친환경 신발 2종은 페트병 리사이클링 원단 및 폴리에스테르 대비 생분해가 빠르고 에너지 사용도 적다.

친환경 신발 출시에 맞춰 기존에 제공되던 포장용 종이 상자 대신 다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천 소재의 다회용 '슈즈백'을 제공한다.

노스페이스는 500ml 페트병 약

370만개를 재활용한 '에코 플리스 컬렉션'을 출시한 바 있다.

노스페이스가 이번 시즌 출시하는 친환경 신발 2종은 '발키리 보아 2 고어텍스'와 '클래식 올 스니커즈'다.

발키리 보아 2 고어텍스는 갑피(어퍼)에는 페트병 리사이클링 원단을, 안창(인솔)은 생분해되는 천연 올을 각각 적용했다. 고어텍스 인비저블 핏 기술이 적용된 이중 중창(미드솔) 구조로 방수, 방풍 및 투습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쿠셔닝을 개선했다.

또 보아 핏 시스템과 접지력이 우수한 밀창(아웃솔)을 적용해 안정적인 착화감을 제공해준다. 클래식 올 스니커즈는 안창(인솔)과 제품 갑피(어퍼)에 생분해되는 천연 올 소재를 적용했다.

제품 전반에 걸쳐 적용된 천연 올 소재를 통해 뛰어난 통기성과 항균성을 통해 쾌적한 착용감을 제공한다.

또 뛰어난 쿠셔닝의 경량 밀창(아웃솔)을 적용해 장시간 착용해도 발에 피곤함을 덜어준다.

영원아웃도어 관계자는 "노스페이스는 지난 시즌 플리스 재킷, 가방등의 친환경 제품을 선보였다"며 "수년 전부터 모든 제품에 인공 퍼의 100% 적용을 통한 퍼 프리 실천, 세계 최초의 윤리적 다운 인증(RDS) 도입 및 다운을 대체하는 인공 층

전재 개발 등 다양한 노력으로 패션의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고 실천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노스페이스의 친환경을

위한 노력은 제품의 소재를 넘어 생산 공정, 포장, 마케팅 등 가능한 모든 부분에서 적용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印尼 재무부, 사회 보장 등 예산 조기 집행 방침

스리 룰야니 인드라와띠(Sri Mulyani Indrawati)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은 최근 사회 보장과 촌락(村落) 개발 지원에 관한 예산의 집행을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다.

13일자 현지 자카르타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내총생산(GDP)의 5% 이상을 지탱하는 개인 소비를 자극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세계 경제의 영향을 완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스리 장관은 "빈곤 가정을 위한 조건부 현금 지급 프로

그램인 '희망 가족 프로그램(PKH. Program Keluarga Harapan)'과 학교운영지원(BOS), 식량 교환권 배포, 촌락 개발 등에 관한 예산의 대부분을 1분기(1~3월)에 집행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 지출을 늘려 개인 소비의 위축을 막겠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싱크탱크 경제 개혁센터(CORE)의 모하마드 파이살 이사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올해 인도네시아의 실질 GDP 성장률이 전년 대비 4.9%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대한민국 최초 ISO 8573-1 Class "0" 인증획득!

**COAIRE**  
COMPRESSOR  
[www.ekyungwon.co.kr](http://www.ekyungwon.co.kr)

## 대한민국 콤프레샤의 역사 경원 콤프레샤



### 경원 콤프레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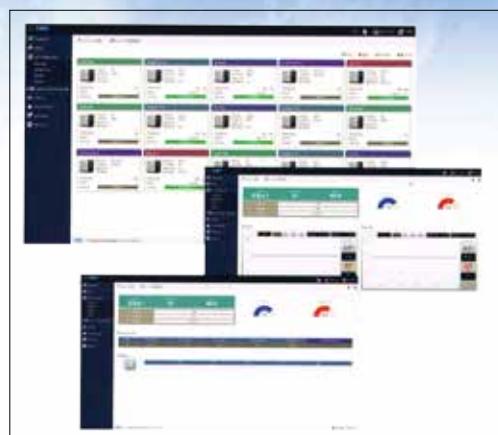
사용이 편리한 다기능 Full MICOM 장착  
에너지 효율을 고려한 운전모드  
대화가 가능한 운전소음  
오일함량 2PPM 이하의 청정한 압축공기  
주워온도 50C에서도 안정적 운전가능  
경원의 모든제품 AS가능  
(한국에서 구입한 제품도 가능) 및 주요부품, 소모품 상시보유

### 내 손안의 관리시스템- 경원 CMS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완벽한 해법,  
경원 콤프레샤 모니터링 시스템



### PC Version



### 운전상황 Monitoring

1. 최대 15대까지 모니터링
2. 상태 모니터링
  - 공기압력, 토출온도, 운전상태
  - 실시간 온도, 압력 확인
  - 과거 운전 이력 확인
  - 알람 실시간 문자메시지 발송
3. 운전시간
  - 총 운전시간, 남은 유비보수 시간 확인
4. 콤프레샤 관리보고서 출력
  - 가동율, 유지보수 시간, 가동 패턴
  - 에너지 유량 현황, 전년동기 전력, 유량 분석

### PT. KYUNGWON CENTURY KORAIR

#### INDONESIA OFFICE

Jl. Raya Serang KM. 12 Desa Bunder Cikupa-Tangerang  
Telp : 021 5940 2605  
김태봉 : +62 811 932 689  
E-Mail : kimb160@gmail.com

#### JEPARA OFFICE

Ruko 1A Suudi RT. 04 RW. 01Desa Kali Pucang Wetan, Kec. Welahan Jepara Jateng (Depan SMPN 1 Welahan)  
Kode Pos 59464  
Telp : 0291 751 2682

#### KOREA OFFICE

102 Dongil-Ro, Kwangjin-Gu Seoul, Korea  
Telp : +82 2 465 6308  
Fax : +62 2 468 7202  
E-Mail : dbkw2000@hanmail.net  
<http://www.dbkw2000.com>

## 신발통계자료

### [신발산업진흥센터] 글로벌 10대 신발소비 국가

순위	국가	총(백만)	경유율
1	중국	4,110	18.40%
2	인도	2,606	11.70%
3	미국	2,391	40.70%
4	인도네시아	997	4.50%
5	브라질	857	3.60%
6	일본	724	3.20%
7	독일	451	2.00%
8	파키스탄	424	1.90%
9	영국	420	1.90%
10	프랑스	416	1.90%

자료: World Footwear yearbook 2019

- 글로벌 10대 소비국가가 인구의 54%를 차지함
- 글로벌 10대 소비국가가 소비량의 60%를 차지함
- 중국과 인도는 인구가 13억 ~ 14억명 내외이지만 중국의 소비가 50% 더 높게 나온다
- 인도와 미국은 인구수에 비해 소비량은 비슷하지만 이는 경제력에 의한 차이
- 인도네시아와 브라질은 전년 대비하여 점유율 증가
- 독일과 파키스탄의 소비증가로 영국은 아동 부문에 위치

### [신발산업진흥센터] 글로벌 신발소비 현황

#### 2) 글로벌 신발소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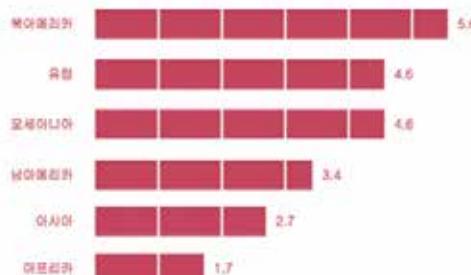
□ 1인당 글로벌 신발소비 분포 (2019)



자료: World Footwear yearbook 2019

- 지난 10년 동안 신발소비량은 국제인구통계와 경제역학을 반영하여 많은 변화가 있음을
- 아시아는 2010년 이후 5% 글로벌 시장에서의 소비량 증가
- 아프리카는 4%, 유럽은 5%, 북아메리카는 3% 점유율 감소
- 이러한 패턴은 앞으로 지속될 예정

#### 3) 대체별 1인당 신발 소비량 (2019)



자료: World Footwear yearbook 2019

## 에너지 반동 품, 실효성 있을까?



▲ 출처: sneakerfreaker.com

오늘날, 에너지 반동이라는 특성은 새로운 디자인의 핵심처럼 보이지만 이 같은 개념이 나온 것은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이 기술의 목표는 러너가 가능한 한 많은 추진력을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신발을 제작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운동화 제조업체들은 세계 최고의 화학 엔지니어링 인재를 모집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제기할 수 있는 문제는, ‘에너지 반동이 가능한 일일까?’라는 것이다.

최근 들어 ‘에너지 반동’이라는 용어가 마케팅 용어로 사용되고 있지만, 스니커즈 브랜드들은 수십 년 전부터 추진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다고.

등학교 물리학 수업 시간에 에너지는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배운 기억이 있을 것이다. 즉 에너지는 한 가지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전환되는 것이다.

지가 손실된다. 쿠션감이 좋은 풋웨어는 발을 편안하게 만들어 충격을 분산시키지만, 에너지 반동 디자인은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전환시켜 앞으로 나가게 만든다.

개발 초기에는 에너지 반동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구조적으로 접근했다. 리복의 ERS 시리즈는 발을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기 위해 회전점을 개발했으며 나이키의 샥스(Shox)는 전통적인 품 밑창과는 다르게 작용하는 EVA를 적용했다. 하지만 화학 엔지니어링의 발전 덕분에 또 다른 방향에서 접근이 가능해졌다.

스니커즈 제조업체들은 화학 물질 대기업의 도움을 받아 원하는 속성을 낼 수 있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미드솔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아디다스와 브룩스는 BASF를 활용하기 시작했으며 언더아머는 도우 케이컬(Dow Chemical)로부터 후버 시리즈의 소재를 공

어, 지나치게 빠르게 에너지를 반동시키면 충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여기에서 더욱 어려운 점은 디



▲ 언더아머 후버 팬텀

자이너들이 특정한 운동선수의 에너지 값을 토대로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러너마다 러닝 스타일이 다르고 착용자마다 체중이 다르다는 것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현대에 개발된 품 화합물은 약 70%의 확률로 에너지를 반동 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브랜드마다 이 화합물 구성비는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어 부스트는 TPU를 사용하고 있으며 브룩스는 TPU와 PU를 혼합해 사용하고 있다.

또한, 언더아머는 도우 케미컬의 독점 화합물만을, 뉴발란스는 EVA를 사용하고 있다.

에너지 반동 품의 작동 여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이는 전적으로 러너에게 달려 있다. 기업들은 이러한 품 화합물이 러너의 주행 방식에 변화를 일으킬 것처럼 광고하고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그러나 러너에게 맞는 속도로 러닝 방식을 보완할 수는 있다.

관절과 힘줄, 근육이 신발의 속성과 상호작용하게 만드는 것은 러너의 판단에 달려있는 것이다.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하다. 착용감이 좋다면 신으면 되는 것이다. 새로운 품은 과거의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속도에 관계 없이 발이 편 할 수 있다.



▲ 나이키 에픽 리액트

급받고 있다.

전통적인 EVA 스니커즈 밑창은 약 50% 정도 에너지를 반동한다. 즉, 러너의 걸음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의 절반 가량이 열과 소리로 사라진다는 의미다. 이에 풋웨어 디자이너들은 반동되는 에너지 양을 늘리거나 사라지는 에너지 양을 줄이는 방식 두 가지 방식을 조사했다.

하지만 이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러너에게 에너지를 잘못된 방식으로 전환시키면 부작용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



▲ 리복 ERS

그러나 스니커즈 디자이너들은 러너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지만 에너지원을 끌어낼 만한 것은 없다. 하지만 단 한 가지, 바로 러너가 에너지원이 되는 방법이 있다. 러너가 지면을 박차고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상당량의 에너

지가 손실된다. 쿠션감이 좋은 풋웨어는 발을 편안하게 만들어 충격을 분산시키지만, 에너지 반동 디자인은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전환시켜 앞으로 나가게 만든다.

개발 초기에는 에너지 반동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구조적으로 접근했다. 리복의 ERS 시리즈는 발을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기 위해 회전점을 개발했으며 나이키의 샥스(Shox)는 전

통적인 품 밑창과는 다르게 작용하는 EVA를 적용했다. 하지만 화학 엔지니어링의 발전 덕분에 또 다른 방향에서 접근이 가능해졌다.

스니커즈 제조업체들은 화학 물질 대기업의 도움을 받아 원하는 속성을 낼 수 있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미드솔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아디다스와 브룩스는 BASF를 활용하기 시작했으며 언더아머는 도우 케이컬(Dow Chemical)로부터 후버 시리즈의 소재를 공

어, 지나치게 빠르게 에너지를 반동시키면 충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여기에서 더욱 어려운 점은 디



자이너들이 특정한 운동선수의 에너지 값을 토대로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러너마다 러닝 스타일이 다르고 착용자마다 체중이 다르다는 것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현대에 개발된 품 화합물은 약 70%의 확률로 에너지를 반동 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브랜드마다 이 화합물 구성비는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어 부스트는 TPU를 사용하고 있으며 브룩스는 TPU와 PU를 혼합해 사용하고 있다.

또한, 언더아머는 도우 케미컬의 독점 화합물만을, 뉴발란스는 EVA를 사용하고 있다.

에너지 반동 품의 작동 여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이는 전적으로 러너에게 달려 있다. 기업들은 이러한 품 화합물이 러너의 주행 방식에 변화를 일으킬 것처럼 광고하고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그러나 러너에게 맞는 속도로 러닝 방식을 보완할 수는 있다.

관절과 힘줄, 근육이 신발의 속성과 상호작용하게 만드는 것은 러너의 판단에 달려있는 것이다.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하다. 착용감이 좋다면 신으면 되는 것이다. 새로운 품은 과거의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속도에 관계 없이 발이 편 할 수 있다.

그러나 스니커즈 디자이너들은 러너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지만 에너지원을 끌어낼 만한 것은 없다. 하지만 단 한 가지, 바로 러너가 에너지원이 되는 방법이 있다. 러너가 지면을 박차고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상당량의 에너

지가 손실된다. 쿠션감이 좋은 풋웨어는 발을 편안하게 만들어 충격을 분산시키지만, 에너지 반동 디자인은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전환시켜 앞으로 나가게 만든다.

개발 초기에는 에너지 반동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구조적으로 접근했다. 리복의 ERS 시리즈는 발을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기 위해 회전점을 개발했으며 나이키의 샥스(Shox)는 전

통적인 품 밑창과는 다르게 작용하는 EVA를 적용했다. 하지만 화학 엔지니어링의 발전 덕분에 또 다른 방향에서 접근이 가능해졌다.

스니커즈 제조업체들은 화학 물질 대기업의 도움을 받아 원하는 속성을 낼 수 있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미드솔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아디다스와 브룩스는 BASF를 활용하기 시작했으며 언더아머는 도우 케이컬(Dow Chemical)로부터 후버 시리즈의 소재를 공

어, 지나치게 빠르게 에너지를 반동시키면 충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여기에서 더욱 어려운 점은 디



자이너들이 특정한 운동선수의 에너지 값을 토대로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러너마다 러닝 스타일이 다르고 착용자마다 체중이 다르다는 것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현대에 개발된 품 화합물은 약 70%의 확률로 에너지를 반동 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브랜드마다 이 화합물 구성비는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어 부스트는 TPU를 사용하고 있으며 브룩스는 TPU와 PU를 혼합해 사용하고 있다.

또한, 언더아머는 도우 케미컬의 독점 화합물만을, 뉴발란스는 EVA를 사용하고 있다.

에너지 반동 품의 작동 여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이는 전적으로 러너에게 달려 있다. 기업들은 이러한 품 화합물이 러너의 주행 방식에 변화를 일으킬 것처럼 광고하고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그러나 러너에게 맞는 속도로 러닝 방식을 보완할 수는 있다.

관절과 힘줄, 근육이 신발의 속성과 상호작용하게 만드는 것은 러너의 판단에 달려있는 것이다.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하다. 착용감이 좋다면 신으면 되는 것이다. 새로운 품은 과거의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속도에 관계 없이 발이 편 할 수 있다.

그러나 스니커즈 디자이너들은 러너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지만 에너지원을 끌어낼 만한 것은 없다. 하지만 단 한 가지, 바로 러너가 에너지원이 되는 방법이 있다. 러너가 지면을 박차고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상당량의 에너

지가 손실된다. 쿠션감이 좋은 풋웨어는 발을 편안하게 만들어 충격을 분산시키지만, 에너지 반동 디자인은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전환시켜 앞으로 나가게 만든다.

개발 초기에는 에너지 반동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구조적으로 접근했다. 리복의 ERS 시리즈는 발을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기 위해 회전점을 개발했으며 나이키의 샥스(Shox)는 전

통적인 품 밑창과는 다르게 작용하는 EVA를 적용했다. 하지만 화학 엔지니어링의 발전 덕분에 또 다른 방향에서 접근이 가능해졌다.

스니커즈 제조업체들은 화학 물질 대기업의 도움을 받아 원하는 속성을 낼 수 있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미드솔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아디다스와 브룩스는 BASF를 활용하기 시작했으며 언더아머는 도우 케이컬(Dow Chemical)로부터 후버 시리즈의 소재를 공

어, 지나치게 빠르게 에너지를 반동시키면 충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여기에서 더욱 어려운 점은 디



자이너들이 특정한 운동선수의 에너지 값을 토대로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러너마다 러닝 스타일이 다르고 착용자마다 체중이 다르다는 것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현대에 개발된 품 화합물은 약 70%의 확률로 에너지를 반동 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브랜드마다 이 화합물 구성비는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어 부스트는 TPU를 사용하고 있으며 브룩스는 TPU와 PU를 혼합해 사용하고 있다.

또한, 언더아머는 도우 케미컬의 독점 화합물만을, 뉴발란스는 EVA를 사용하고 있다.

에너지 반동 품의 작동 여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이는 전적으로 러너에게 달려 있다. 기업들은 이러한 품 화합물이 러너의 주행 방식에 변화를 일으킬 것처럼 광고하고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그러나 러너에게 맞는 속도로 러닝 방식을 보완할 수는 있다.

관절과 힘줄, 근육이 신발의 속성과 상호작용하게 만드는 것은 러너의 판단에 달려

## 내 발도 지키고 지구도 지키는 신발은 어디 제품?



삼성패션연구소가 2020년 패션 시장의 트렌드로 ‘지속가능성의 유지’를 전망했다.

여러 패션 브랜드들은 의류 뿐 아니라 각종 용품 및 신발 카테고리까지 확대한 친환경 제품 출시에 나섰다.

가치소비와 명분, 그리고 스타일까지 중시하는 그린슈머 사로잡기에 나선 모습이다.



### ◇생분해 빠른 ‘노스페이스 클래식 올 스니커즈’

국내에서는 노스페이스의 움직임이 가장 활발하다.

노스페이스는 최근 폴리에스테 대비 생분해가 빠르고 공정 시 에너지 사용도 적은 천연 올 소재 신발을 출시했다.

‘클래식 올 스니커즈’는 안창(인솔)은 물론 제품 갑피를 생분해되는 천연 올소재를 적용했다.

통기성과 항균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쿠셔닝도 월등해 장시간 착용 시에도 발의 피곤함을 덜어준다.

군더더기 없고 날렵한 세련된 디자인 덕분에 일상, 출퇴근 및 여행 등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폭넓게 활용 가능하다.

노스페이스는 이번 시즌부터

신발 구입 고객을 대상으로 기존 포장용 종이 상자 대신 다용도로 활용 가능한 주머니 형태의 ‘슈즈백’을 제공한다.

소비자들의 친환경 소비를 독려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 ◇아디다스 ‘테렉스 프리 하이커 팔리’

스포츠 의류 업체 아디다스는 2016년부터 해양환경보호단체 ‘팔리포도오션’과 손잡았다. 해양 정화 작업으로 수거된 플라스틱 폐기물을 활용해 만든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신제품 트레일 슈즈 ‘테렉스 프리 하이커 팔리’는 장거리 하이킹용 슈즈다.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을 업사이클한 팔리 오션 플라스틱 소



재를 적용했다.

아디다스는 올해 해안지대의 플라스틱 폐기물로 1500만 ~2000만 컬레의 신발을 생산할 계획이다.

### ◇친환경 슈즈 브랜드 ‘베자’ & ‘로티스’

프랑스 브랜드 ‘베자’ (Veja)는 재활용 또는 천연 소재를 사용한다.

고무나무에서 채취한 고무, 유기농 목화, 코코넛 섬유로 만든 재료를 사용하거나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 물고기 가죽과 같은 친환경 소재로 운동화를 만든다.

특히 면과 고무 등의 주요 재료는 공정 무역을 통해 유통된 제품을 사용한다.

영국 왕자비 메건 마클이 신은 착한 신발로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메건 마클이 신은 미국의 여성화 ‘로티스’ (Rothy's) 역시 재활용 소재를 사용해 만든다.

버려진 페트병에서 플라스틱 실을 추출해 3D 프린터로 디자인을 입력한 플랫 슈즈다.

신발 한 컬레에 3개의 페트병이 사용된다.

니트 형식의 신발로 착용감이 뛰어나고, 물에 빨아 신어도 변형이 없다는 장점으로 잘 알려져 있다.

머니투데이

## 스리 재무장관, 올해 경제성장을 5.3%→4.7% 하향 조정 시사

인도네시아의 스리 룰야니 재무장관은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기존의 5.3%에서 4.7%로 하향 조정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 포스트 20일자 보도에 따르면 스



리 재무장관은 19일 기자회견에서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라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올해 1~2%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1% 하락하면 인도네시아의 성장률은 0.3~0.6% 떨어진다.”라고 말하며 이 상태가 계속돼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1% 떨어진다면, 인도네시아의 GDP 성장률 예측도 5.3%에서 최대 4.7%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 “라고 언급했다.

스리 재무장관은 이어 “

하지만 중국 정부는 최근 가장 타격을 크게 받고 있는 관광업과 제조업 중소기업에 3,000억 위안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발표, 2분기(4~6월)에 중국 경제는 회복될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20

일 인도네시아의 GDP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5.1~5.5%

외국 기업이 100% 취득하는 것은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자 기업의 출자 비율을 제한하는 네거티브리스트(투자 규제 분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형태로 포지티브리스트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 법안에는 정부 관련 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을 외자에 개방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라며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이 리스트에는 택스 홀리데이(법인세 일시 면세 조치)와 대형 면세 조치 등 투자 기업에 대한 우대 정책도 포함된다. 현지 중소기업의 주식을

## 경제조정부 “포지티브리스트, 옴니버스 법 통과 전 실현”

아이르랑가 하르파르또 (Airlangga Hartarto)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은 17일, 외자 기업에 투자를 개방할 분야를 정한 ‘포지티브리스트(Positive List)’의 책정에 대해 중복된 내용의 법령을 통합한 ‘옴니버스 법’ 중 세제 관련 법안과 일자리

창출 법안의 통과 전에 실현시키겠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포스트의 18일자 보도에 따르면, 두 법안 모두 이미 하원에 제출되어 있다.

아이르랑가 장관은 포지티브리스트에 대해 “아직 이해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

## 미세먼지 까지 제거하는 AIR 흡입방식 신개념 유해물질 제거 집진기

에어맥스 클린매트

### 설치장소

Clean Room/식당/병원/호텔/공장/백화점  
빌딩/마트/학교/극장/터미널/관공서/방송국  
공연장/박물관/발전소/전시장/은행/지하철

### 제품 특징

1. 순간 에어 흡입방식
2. 신발의 미세먼지 차단(눈, 빗물제거가능)
3. 청결하고 깨끗한 업무환경
4. 집진기에 의해 모여진 이물질 처리 용이
5. 외부 충격에 강함

물류대차, 지게차, 주차장 차량출입구 적용가능

## AIRMAX CLEAN MAT

별도 공사 없이 시공가능  
고객 원하는 치수 주문제작

매트 두께 : 20mm



테스토닉

0811-97-8638

korea\_kjj@daum.net

kakalkalk ID : dragon88ind

PT.ZEUS Component Indonesia

## 코로나19에 전방위로 확산하는 세계경제 충격

전세계적으로 촘촘히 얹힌 산업망에 구멍 생기며 연쇄 피해  
인도네시아 자바섬 섬유 벨트는 주문 몰리며 반사이익



▲ 코로나19에 전방위로 확산하는 세계경제 충격 (PG)[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중국 경제가 사실상 마비된 후 그 충격이 전 세계에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24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중국발 충격은 코일이 없어 고급 손목시계를 만들지 못하는 것을 비롯, 수요 부족으로 잡은 랍스터를 다시 바다로 돌려보내고 최신 보드게임의 발표를 연기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홍콩의 고급 시계인 메모리진 와치는 시곗바늘과 눈금판, 유리, 시곗줄, 잠금장치 등 수백개의 부품을 중국 본토에서 조달하지 못해 생산을 멈췄다.

이 회사 관계자는 “부품 공급이 중단돼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고 고객에게 제품을 전달하는 못한 첫 번째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시계 제조의 전문성 때문에 중국 밖에서 부품을 조달하려면 추가 비용이 들어 다른 대안이 없으며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뉴질랜드 정부는 최근 중국의 주문 취소로 바닷가재 150~180t을 보관할 장소가 부족해지자, 육지와 바다 등에 분산해 보관해오던 바닷가재 일부를 방류한 후 나중에 다시 잡기로 했다.

미국 샌디에이고의 게임업체 레니게이드는 마법사와 바이킹 전사, 귀여운 고양이 등을 이용한 최신 공상 보드게임의 출시를 준비해왔는데, 중국 상하이와 선전 주변 공장들이 일부 가동 중단 상태여서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됐다.

스콧 개타 레니게이드 회장은 “출시 시기가 2~6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멕시코의 가구 공장을 운영하는 미국의 조나단 바스는 뒷면이 알루미늄으로 받쳐진 거울과 경첩, 폴리에스터 베갯속 등의 부품들이 상하이항구에 량여있어 다른 공급선을 찾느라 동분서주하고 있다. 바스는 “물건들이 선적되려

면 2주를 더 기다려야 한다”면서 물류가 지연되면서 상하이항 창고 보관료가 추가로 부담도 늘었다고 토로했다.

독일의 자동차 부품회사 베바스토는 스토토르프 공장의 직원 1천여명 중 8명이 지난 달 중국인 동료의 교육 방문 기간 코로나19에 감염돼 해당 공장의 가동을 2주간 멈췄다. 베바스토는 또 180여명 직원의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하고 전문가들을 고용해 공장과 회의실을 소독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다행히 추가 감염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이 높은 상황”이라면서 후베이 성을 포함한 중국 12개 공장들의 가동을 순차적으로 재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인도네시아 자바섬 섬유 벨트의 공장들은 최근 코로나19 발병 후 중국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제품의 주문들까지 몰리며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인도네시아 중부 솔로 외곽의 한 공장은 중저가 백화점인 JC 페니와 게스, 월마트 등 유명 제품을 생산하느라 재봉틀이 쉴새 없이 움직이고 있다.

자바섬의 의류 공장들은 밀려드는 주문들을 모두 소화하려면 앞으로 최소 6개월은 완전 가동 상태를 지속해야 할 정도다.

그러나 자바섬에서 아디다스와 미즈노 등 신발을 만드는 공장들의 경우 좋지만은 않다. 중국에서 일부 핵심 부품을 수입하기 때문에 완제품 주문이 밀려들어도 모두 소화할 수 없는 것이다.

세계 2위의 채굴 장비 제조업체인 일본의 고마츠는 코로나19로 부품 수급에 차질이 생기자 중국의 공장을 일본으로 옮겨오거나 베트남, 태국 등 아시아의 다른 나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의 히타치는 중국 동부의 안후이 공장 가동이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돼 정상 가동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우려된다.

[연합뉴스]

## 손흥민, 화사·이정후와 아디다스 캠페인 앰버서더 선정됐다

축구선수 손흥민(토트넘 핫스퍼)이  
아이다스 러닝 캠페인 앰버서더가 됐다.



27일 아디다스 측은 러닝 캠페인 ‘FASTER THAN: ~보다 빠르게’를 런칭하고 손흥민과 화사, 이정후를 캠페인 앰버서더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세 사람의 모습을 담은 아디다스 캠페인의 영상과 화보는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손흥민은 ‘어제의 나’ 보다 빠르게, 화사는 ‘화사’ 보다 빠르게, 이정후는 ‘남들의 기대’ 보다 빠르게로 자신만의 생각을 담았다.

각자 자신만의 빠름에 대한

‘빠르게’는 빠름의 기준이 스피드와 기록이 아닌 개인의 만족과 성취감에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러닝을 통해 좀 더 나은 자신이 되어가는 다양한 크리에이터들의 스토리를 통해 빠름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제시한다.

이번 캠페인을 기념해 새로운 컬러와 디자인의 러닝화 울트라부스트20을 출시한다. 울트라부스트20은 2020년의 대표적인 트렌드 컬러인 오렌지 레드 컬러가 그레이디션 된 힐 프레임과 미드솔이 시선을 집중시킨다.

부스트 품 특유의 편안한 탄력감과 에너지로 더 멀리, 더 오래 달릴 수 있도록 모든 기술력이 집약됐다.



SINCE 1968

### 대한민국 No.1 보일러

# 삼호 보일러

### 소각 스팀 보일러

- 용량 : (0.5T/H~5.0T/H) × 1.0Mpa
- 연료 : 섬유 / 목재 / 종이 / 석탄



### 입형 연관식 보일러

- 용량 : (0.1T/H~2.0T/H) × 1.0Mpa
- 연료 : 경유, 가스, 중유



**특허번호 10-0870543 호**

- 콘덴싱 보일러
- 횡형수관식 보일러
- 수관식 보일러
- 노통연관식 보일러
- 초소형노통연관식 보일러

- 무압관수식 보일러
- 진공온수 보일러
- 관류형 보일러
- 소용량입형연관식

**인도네시아 공식 대리점**


**PT. HANSHIN AIR COMPANY**

**자카르타**

유인대 Hp : 0811 834 398 E-mail : hanshinyu@hotmail.com  
Ruko Tataka Puri Blok C1 No. 25 Jl. Curug Raya Bitung Tangerang 15810  
Tel. 021.5949.4000 / 5949.4222 Fax. 021.5949.4666

**스마랑**

정연오 Hp : 0815 1439 0006  
Ruko, Jl. Gotri Jepara, Ds. Kalipucang Wetan RT. 001 RW. 002 No. 3 & 4  
Kec. Welahan Jepara – Jawa Tengah

**SUNTECH****■ AUTO PALLET FEEDING SYSTEM**

작업자의 PALLET LOAD-UNLOAD 시간 단축에 의한 생산성 증대 효과 기대

**■ FLAT TYPE EMBROIDERY MACHINE**

고속 CPU를 적용하여 Multi-tasking 기능 및 원격제어 기능을 통한 고품질 제품 생산 가능

**■ AUTO BOBBIN CHANGER**

자동 보빈 체인지 기능으로 밑실 소진에 의한 불량 발생 차단 가능. 소진된 보빈 자동 교체로 DOWN TIME 최소화

**■ 2-NEEDLES PATTERN**

한대의 기계에 2개의 바늘대 운용으로 UPPER 2개의 컬러 실 사용 가능. 인원 감소 및 생산성 증대 효과 기대

**■ IoT SYSTEM**

신발공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맞춤형 IoT SYSTEM 구축 (OEE, KPI 등)

# Making — **AUTOMATION FACTORY** with SunTech's Smart technology!

**SunTech R&D CENTER 개발 능력**

재봉기, 자수기 기구 설계, 구조 해석

재봉기, 자수기 캠 설계 및 측정 자동화 시스템 개발

패턴 재봉기, 자수기 컨트롤러 (CPU & OP 보드) 개발

패턴 재봉기, 자수기 Program 개발

현장 맞춤형 IoT System 개발

브랜드 합작 신기종 개발



SUNTECH  
밀양 공장 전경

**SUNTECH GLOBAL NETWORK SYSTEM****HQ & R&D CENTER & FACTORY**

394-5, Sanoe-ro, Sanoe-myeon,  
Miryang-si, Gyeongsangnam-do

TEL +82-55-352-9304

**SUNTECH CHINA FACTORY**

TEL +86-755-8429-5840  
H.P +86-137-1450-7030

**CIKARANG BRANCH**

Ruko Podium Blok A No. 1 & 2 Jl. Mataram,  
Lippo Cikarang Kel. Cibatu, Kec. Cikarang Selatan, Bekasi

TEL +62-21-2210-4936~7

H.P +62-811-911-2248

**HANOI BRANCH**

TEL +84-24-3991-9222  
H.P +84-91-494-8802

**JEPARA BRANCH**

Jl. Jepara-Kudus, Desa Rengging  
RT.006 RW.001 Pecangaan, Jepara

TEL +62-21-2210-4936~7

H.P +62-811-911-2248

**HOCHIMINH BRANCH**

TEL +84-28-6682-8877  
H.P +84-97-932-8610